

# 민형배,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

## 강선우·김민석·김병주·이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도 현역 의원 7명·원외 1명...20일부터 전국 순회 경선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민형배 후보(광주 광산출)를 포함해 강선우·김민석·김병주·이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 후보(가나디순) 등 8명이 통과했다.

모두 13명이 출마한 이번 예비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7명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원외에서는 정봉주 후보 1명만 본선에 올랐다. 반면, 이성운 의원과 김지호 부대변인, 박원희 정주시의원, 박진환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 최대호 안양시장은 탈락했다.

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를 통해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인주·전현희·정봉주·한준호 후보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1인 2표제로 진행된 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가 반영됐다. 특히 기존에는 중앙위원들의 투표 100%만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했으나, 이번부터는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규정이 달라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 선수가 높은 원내 인사들이나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리당원의 경우 총선거인단 약 124만2천명 중 38만명 가량이 참여해 3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위원 선거인단의 경우 36명 가운데 82.78%에 해당하는 27명이 투표했다.

8월18일 전당대회 본선에서는 최종 5명이 선출된다. 본 경선은 당대표 선거와 동일하게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30% 투표가 반영된다.

이날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이재명 마케팅’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1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지역내 열망에 따라 출마한 민형배 후보는 “이재명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저희 민주당의 가장 크고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무너트리길 가장 힘있는 무기가 됐기에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후보는 “0.7% 패배 아픔을 딛고 중원을 정복하는 선봉장이 되겠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최소 3% 정도는 개인을 고 점령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강선우 후보도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온라인당원 출신인제가 열겠다”며 “김건희 정권의 목표는 오직

김건희 살리기와 이재명 죽이기다. 망나니의 칼춤을 멈추는 방법은 그 칼을 빼앗는 것이다. 김건희 정권을 기필코 끌어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 대표 경선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만 입후보함에 따라 별도 예비경선을 실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가 4명 이상일 때에만 본선 후보 3명을 추리는 예비경선을 하는 기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도당·인천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8월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및 5명의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한다. /김진수기자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인주 후보. /연합뉴스

# 이재명, 중도확장 카드로 ‘시즌2’ 준비

## 민생·외교·안보 문제 집중 전략...사법리스크는 부담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중도 확장’ 카드로 ‘시즌2’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당권 레이스 기간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당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14일 통화에서 “지도자가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확고한 원칙이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당 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생주의를 뜻하는 ‘떡사니즘’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전략은 결국 두 번째 임기가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라는 인식의 결과로 풀이된다.

당권은 물론 대권을 놓고도 당내에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미래 비전으로 대권주자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출마 회견에서 민주당의 상징적 정책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

을 언급하고, 금융투자세 유예 여지를 열어도 된다는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는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온 정동영·김병주·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방미 성과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일각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지지층이 반대하는 ‘감세 프레임’으로 보수일 수 있는 중부세 개편론에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김두관 대표 후보 캠프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중부세 제검토와 금융투자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이 후보의 또 다른 숙제로는 지난 2년간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오는 10월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월6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데 이어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같은 달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봐야 하겠지만, 1심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농어업 재해 대책 정부 권한·책임 강화

### 문금주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14일 “농어업 재해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 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을 포함한 농수축산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우, 이상기온, 해수면 온도 상승, 산불, 가축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에 당면해 있다. 기후 위기는 농작물 작황과 어족 자원 변화 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와 가축 사육환경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어 생계의 불안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축산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 재원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원 출처와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책임 및 농수축산업 재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림부와 해수부가 필요한 기금의 확보와 운용·관리를 하도록 명확히 했고 입법 및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가적 환경 재난과 기후 위기에 근본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수기자

## 정진욱 “GGM 연간 10만대 생산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사진)은 지난 12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기존의 캐스퍼 차량에 더해 그랜저급 대형 차종까지 생산 가능하도록 설비가 구축된 만큼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광주와 현대자동차의 협업 모델을 추진하는 반값 전기차 보급을 계기로 광주가 전기차 생산 선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청년층 유입이 늘어날수록 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GGM은 2020년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돼 광주시민의 기대가 큰 회사”라며 “협력업체 직원까지 직·간접 고용 인원만 1천600여명에, 특히 직접 고용 직원 657명 중 20~30대 MZ세대가 5

38명으로 82%인 희망기업”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아오트랜드 광주’를 방문해 “지나해 기아오트랜드 광주가 연간 내수 18만7천988대, 수출 35만3천132대 등 5만2천100대 차량을 생산해 창립 이후 역대 최대 생산을 달성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벌기업 기아자동차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기아오트랜드 광주가 미래차 전진기지로서, 광주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자율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및 미래차 부품 기술 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도 더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Lists multiple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details like address and price.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List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land parcels and buildings.

Legal notice regarding the court auction of real estate, detailing the auction process, term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urt and auctioneer.